

哲學的 直覺論

韓稚振

一. 哲學 方法

只今 말하려하는 哲學의 直覺 方法은 實로 哲學界에 잇서 革命을 意味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勿論 이 主張은 只今 말하려는 哲學的 方法이 在來多數한 哲學者들의 理論에서 都無지 차자 볼 수 업다는 것은 안니다. 다만 過去에 잇서서 이 新方法은 無意識的으로 使用하여슬것뿐이요, 意識的으로 이方法이 哲學 研究의 必然한 方法이라고는 生覺지 안이 하엿다는 것이다. 故로 우리는 力說하기를 萬一 只今부터라도 여기에 紹介할냐는 直覺 方法이 哲學 研究에 應用된다고 하면 不遠하여 眞正한 形而上學이 創造될 것이요. 宇宙의 새로운 眞理를 찾게 되리라고 生覺한다.

우리의 新方法을 宜言함에 잇서서 過去 二千五百年 동안에 밝아온 哲學 研究의 方向을 逆轉하여야 하게 되엿다. 過去의 哲學者들은 서로 올코 完全한 體系를 가졌다 하여 反目하기를 일삼엿다. 이럼으로 觀光者에게 哲學의 歷史는 一種 自家撞着과 自家失敗의 歷史처럼 印象이 되엿스니 그 原因은 尙今까지 그 研究의 方向이 一定하지 안이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新哲學的 方法은 이 從來의 研究 方向 즉 直覺的 方向을 取하는데서 哲學의 新紀元이 展開된다는 것이다.

在來에 잇서서 哲學은 恒常 實在를 概念으로써 認識하려 하엿스니 이는 概念과 갖흔 高尚한 理性의 作用으로써만 萬有의 根本의 實在를 알 수 잇스리라는 心的 先入見이엿다. 理性은 當場 現實을 超越하여 超感覺의 事物 즉 理性의 事物을 冥想할 수 잇는 努力이기 故로 이러한 勞力으로써만 偉大한 眞理를 探求할 수 있다 하엿다. 이런 故로 「뽀손」 [베러그송] 은 말하기를 一般 우리는 自然히 「플레토」 [플라톤] 的 理性家라 하엿다. 「플레토」는 主張하기를 우리는 感覺의 幻想의 世界에서 산다하여 우리가 보고 듯고 말하는 모든 物體와 時間, 空間은 다 觀念 외 影子라 하엿다. 그리하여 비록 이 世上의 萬物은 變化하고 暫時的이지만은 그 觀念은 不變的이요, 永久的이

라 하였다.

以上과 같은 「플레토」의 見地는 在來 哲學에 固有한 先入見이 되었다. 하여도 過言은 안이겠다. 哲學의 根本的 目的은 萬有의 唯一無二한 實在을 合理的으로 說明하고 組織하려는데 잇다는 것은 임이 指示하였거니와 이 宇宙的 實在은 神秘的으로 알든지 혹 理性的으로 解釋하든지 다 超感覺的이요, 또는 超時間, 空間的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實在은 永遠的이요, 完全하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新見地는 以上の 概念的 方法을 否認한다. 概念은 우리로 하여금 實在을 알 수 업게 할 뿐만 안이라. 實在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實在은 理性안에 잇서서 理性에게 認識될 것이 안이라 理性的 根據가 되어서 理性을 左右하는 것이다.

그런즉 實在은 直覺 方法으로만 認識할 수 있다. 이-理論은 「플레토」나 「헤겔」 哲學과 또는 近代 「쾨레들리」 [브레들리] 式의 哲學에서 볼 수 잇는 理性과 正反對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在來에 잇서서 絕對不變의 對象 혹은 神 혹은 絕對를 理性的 觀念으로써 理解할 수 잇다는 主張은 우리의 直覺的 見地에서는 失敗라고 본다.

二. 直覺論의 意義

그러면 直覺 方法이란 무엇인가? 直覺은 實在을 그대로 直接 認識하는 것을 意味한 것이요, 感覺이나 觀念으로써 안는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먼저 實在을 直覺的으로 아는 方法이 따로 잇다는 것과 또는 直覺으로만 알니여지는 實在이 잇다는 것을 認定하여야할 것이다. 이 直覺的 方法은 啓示的 方法이라고도 할 수 있다. 勿論 現代에 잇서 이러한 啓示的 方法이 잇다는 것을 普通 認定한다만은 우리는 直覺 方法은 事實일 뿐만 안이라 가장 確實하고 單純한 方法인 것을 證明하려한다. 事實上 過去에 잇서서 直覺의 能力을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짓고 잇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過去우리는 認識上 넘우 理性 方面에만 偏重한 까닭에 이제와서 理性的 認識法을 버리고 直覺的 認識法을 代身 使用하려면 多少 心的 不安이 잇슬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우리는 實在을 直覺的으로 알으야 그 全部를 理解할 수 잇슬 것이다. 이러하는 가운데 理性과 生命과의 엇더한 關係를 가졌는지도 決定할 수 있다.

簡單히 말하면 直覺이란 것은 實在을 直接 理解하는 非理性的 方法이란 뜻이다. 非理性的이라함은 知覺과 概念을 意味하는 것이 안이니 왜 그러나 하면 後 兩者는 다 理性的 認識形式인 까닭이다. 그런데 直覺은 왜 知覺과 理性을 否認하는가. 現代 新實在論은 主張하기를 知覺으로써 참 實在을 直接 理解할 수 잇는데 知覺은 理性的 認識形式은 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知覺은 비록 直覺과 近似하다 할 수 잇스나 直覺은 안이다. 直覺과의 分別은 둘이니

(一)知覺은 當場 現實(刹那)에 限하여 純潔하지 못하고 恒常 理性과 概念과 混合하여 存在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 理由 故 知覺은 直覺과 判異한 것이다. 以後 知覺論에 잇서 그 關係를 細密히 말하겠는故로 여기서는 略한다.

우리는 實在를 直覺할 수 있다는 主張을 分明히 說明하기 爲하여 「칸트」의 物自體論을 列舉하고저 한다. 즉 우리의 認識 能力은 物의 現象만을 알 수 있고 物 其 自體는 알 수 업다는 「칸트」의 現象論과 우리의 直覺論을 比較하여 보려한다. 「칸트」에 依하면 우리의 心理는 一定한 設計인대 外界에서 모든 感覺이 無順으로 드러와 一定한 規律的 形式 下에서 組織이 된 다고 한다. 이 規律的 形式은 心理(理性)의 固有한 所有로서 普遍性과 妥當性을 가졌다 한다. 簡單히 말하면 外界에서 드러온 感覺的 材料는 心理의 固有한 形式 下에서 組織되는 것이니 이 形式된 것이 곧 智識이다. 이리케 組織되어 안 것은 事物의 現象에 對한 智識 맞게는 더 되지 못한다. 物 自體는 心理의 모든 認識 形式(範疇)을 超越한 것이므로 自然히 不可知될 實在이다. 萬一 認識하는데는 理性的 方法外에 다른 方法이 업다고 하면 以上 「칸트」의 結論이 正當하다 할 것이다. 「칸트」에 依하면 우리의 認識 能力은 다만 物의 現象만 알고 物 自體는 알지 못하는 까닭에 形而上學은 不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直覺論은 主張하기를 物 自體는 理性으로 알 수 업스나 直覺方法으로는 알 수 잇다하여 形而上學이 可能하다 한다.

이제 直覺論을 仔細히 說明하기 爲하여 理性的 認識에 잇서서 比較勳 單純하다고 할 知覺의 作用을 좀 分析하여 보려한다. 知覺으로써 實在를 아는 作用은 普通 單純하고 特殊하다하나 그 作用은 무척 復雜한 것이다. 假令 우리가 一個 實的 혹은 想像物을 知覺하였다하면 그 知覺한 物體는 아조 單純하고 分명한것 갖지만은 그 知覺의 作用은 여러 感覺的 要素의 混合으로써 可能케 된 것이다. 即 一句節에 對한 知覺은 그 句節의 音調 品詞와 構造 形式 等에 對한 各種 知覺이 습하여 形成된 것이다. 그런故로 엇던 單純한 知覺이라도 그 裏面에는 數多한 知覺과 感覺이 潛在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認識의 要素가 有機的으로 合同하여 組織이 되는 때에 知覺의 智識이 發生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깨여 잇는 동안 혼이 實在에 對한 意識을 갖게 된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分明히 보고 혹은 生覺하고 잇는 때에 가지는 自我 意識이다. 그 보고 生覺하는 物件 中에 第一 親近한 것은 우리 肉體이다. 우리가 여러 物體를 意識하는 中에 特別히 (나)라는 普遍的 意識이 全身을 貫通하고잇는 것을 覺悟할 수 잇다. 이 普遍的 自我 意識이 夢中 生活과 깨인 生活を分別하는 媒介이다.

이 普遍的 意識이 업시는 當場의 知覺과 過去의 記憶, 現今, 過去, 未來를 分揀할 수 업슬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보고 生覺하는 特殊의 事物 外에 別異한 事物이 있다는 것이 안이라 다만 特殊한 物件에 對한 意識이 잇는 同時에 그 全 經驗을 貫通하는 普遍的 意識이 있다는 것이니 이는 모든 意識的 經驗에서 否認할 수 업는 條件 즉 實在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이 世上은 다 幻想이오. 우리의 生命도 無價値하다 하드래도 그 幻想을 알고 그 無價値를 意識하는 自我 意識은 否認할 수 업는 것이다. 즉 自我를 否認하는 것까지도 自我의 認證이 되지 안이하면 안된다.